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음 4월 17일) 제20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정부 추경 일자리사업 본격화

전북도는 2018년도 정부추경안이 지난 21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세부사업(38건, 총사업비 139억원)을 28일 제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2018.3.15)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선형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기존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사업으로 지자체가 유형에 적합한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을 기획·제출, 행안부 민관합동 TF심사를 거쳐 선정 후 지자체가 시행(7월 이후)하게 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8개 사업 139억원 신청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이번에 제출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내 1,0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화장품산업 창업인력 양성, 기업 수요 지원 화장품기업 창업교육,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 청년유입 및 지속 정착을 지원할 지역정착 지원형 사업 6건을 발굴했고, 소상공인희망센터 내 청년 창업공간 조성, 교육을 위한 IOT 및 핀테크 기반 청년창업존 조성사업, 청년창업가 입주공간 조성,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활용한 청년CEO 양성 사업, 청년창업랩(LAB) 등 청년창업공간 조성 및 민간부문 취·창업 간접 지원을 위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 5건을 발굴했다.

또한,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복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등 직무역량 강화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 사업 27건을 발굴 제출했다.

전북도는 2018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을

위해 행안부 사업 심사기간 동안 정칙권, 항우회원과 협력하고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사업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지원사업'을 급변 정부추경에 반영하고 군산 등 8개 고용위기지역에 총 151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군산에는 총 500명을 대상으로 3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는 8개 고용위기지역 중 가장 많은 규모이며, 국비는 31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8억원은 도와 군산시가 부담한다.

대상사업은 재해예방, 공공시설물개·보수,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장애인활동지원 등 주민편익증진 및 공익성 있는 일자리사업이며, 사업의 참여대상은 취약계층 지원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로 한정했고, 작년 10월 1일 이후 실업자(배우자) 및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는 제외된다.

도는 하루속히 본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 1.6억원을 편성요청하고, 6월까지까지 국비 교부 및 사업대상자 모집·선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행정안전부·군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어 군산지역에도 예산이 배분됨에 따라, 군산의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12면 - K팝의 새역사 쓰는 방탄소년단



폐쇄 D-1, 군산공장 정문

GM의 결정에 따라 폐쇄를 하루 앞둔 3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오늘 문 닫는 지엠 군산공장 '대안은 OEM 방식'

제너럴모터스(GM)의 결정에 따라 문을 닫게 되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대한 대안으로 OEM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폐쇄 발표와 함께 이뤄진 구조조정 프로그램(희망퇴직)으로 근로자들은 퇴직하거나 다른 공장 전환 배치 및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100여 곳에 달하는 협력(부품생산)업체도 축소나 폐업이 속출하면서 8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받았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군산시와 전북도는 '군산공장 부지 활용' 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꼽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오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이 지방선거 불을 타고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관건은 지엠에 협조를 받아 MOU를 체결한 뒤 컨소시엄 시험 형식으로 추진해 군산공장에서 올 뉴 크루즈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OEM의 장점으로는 단기간 내 가동이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가격과 옵션을 적용하여 생산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 전북도, 정부, 산업은행이 하나로 힘을 보태 한국지엠과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산골콘서트 라인업 공개

오는 6월 21일부터 5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는 여느 뮤직 페스티벌 못지않은 강력한 뮤지션들로 채워진 산골콘서트 공연 라인업을 30일 공개했다.

영화제 개막일인 6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에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음악적 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림, 조정치, 박재정의 개막 공연으로 무주산골영화제의 시작을 알린다.

호평을 받은 김사월과 김해원의 무대도 음악팬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무대이다.

무주산골영화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무주드나무운동장 야외상영 전 메인스테이지의 공연들도 절대 놓칠 수 없다.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을 가진 정인과 뛰어난 기타 실력의 심어송라이터 에디킴의 합동공연을 비롯해 국민밴드 데이브레이크와 감성적이고 세련된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 바이 배드밴드 등 무주

하림 · 조정치 · 박재정 개막공연 시작으로
정인 · 에디킴 · 데이브레이크 등 무대 올라

영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22일 금요일부터는 무주의 낮과 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다. 먼저 등나무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무주드나무운동장의 낭만스테이지에서는 시인 이병률과 보헤미안 뮤지션 하림의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메인 보컬 제아와 세련된 음악 스타일의 퍼센트가 로맨틱한 공연을 펼친다. 한국 최고의 재즈 보컬 딸모와 영혼을 울리는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의 재즈 공연과,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포크 음악으로 대중과 평단의

산골영화제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산골콘서트도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모던 포크 듀오 이상한계절과 투른, 모덕락 밴드 텐마일즈, 뮤즈그레인의 공연 또한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에서 진행된다.

전 관객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무주산골영화제를 찾는 관객의 낭만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산골콘서트의 자세한 일정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확대

전주시, 수요 증가 따라 전문인력 15명으로 증원 등

전주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정병호)는 정부의 국정운영 나침반인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센터를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는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문 전문인력을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기조에 발맞춰 지난 4월에는 전원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보건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재가 암환자 스트레스 관리방법과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건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람도시
품격서전주